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
2011년 4월 1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무역정책과 윤종연 과장(2110-4829), 임형진 사무관(2110-5314)
수출입과 안병화 과장(2110-5331), 민문기 사무관(2110-5333)

2/4분기도 1/4분기에 이어 수출 호조 전망

- 지경부와 업계, 1/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 개최 -

□ 금년 2/4분기 수출도 1/4분기에 이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

○ **'11.4.14(목)**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주재로 업종별 단체, 무역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**1/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**에서 **각 업종별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**

○ 2/4분기에도 **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들은 견조한 증가세**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

- 전체적으로 **1/4분기와 비슷한 수준**으로 수출(10대 품목기준 : 1/4분기 979.4억불 → 2/4분기 987.3억불)이 전망되는 가운데

- **철강, 휴대폰, 자동차** 등은 글로벌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**전년 동기대비 각각 25.6%, 20.3%, 16.8%의 수출 증가**가 예상되고,

- **선박, 디스플레이 등 과잉공급 조정 중에 있는 품목**은 수요부족,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**8.0%, 6.3%의 감소**가 예상되었음

< 2/4분기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>

(단위 : 억불,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수 출 액			
	'11.1분기	증가율	'11.2분기	증가율
선 박	166.2	67.9	135.0	△8.0
반도체	122.1	14.2	138.2	6.8
자동차	97.5	31.1	110.0	16.8
디스플레이	76.3	△2.8	82.2	△6.3
휴대폰	70.2	5.9	73.8	20.3
철 강	83.4	41.9	90.0	25.6
석유화학	108.5	27.0	103.6	14.0
섬 유	37.5	28.1	40.2	10.1
석유제품	105.8	68.3	115.5	25.0
일반기계	111.9	43.9	98.8	7.5

□ 이날 지식경제부는 1/4분기 수출입 실적 보고를 통해, **수출**은 전년 동기대비 30.4% 증가한 **1,318억불**, **수입**은 25.7% 증가한 **1,234억불로, 분기 실적기준으로 사상최대를 기록**하였으며

○ **무역수지**는 **84억불로서 14개월 연속 흑자**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

○ **수출**은 리비아, 일본 지진 등 대외악재에도 불구, **석유제품·선박** 등 **주력품목 수출 확대**로 종전 최고 기록인 '10년 1/4분기 1,287억불을 넘어 **1,318억불을 달성**하였고,

* 품목별 수출증가율(%) : 석유제품(68.3) 선박(67.9) 자동차(31.1) 반도체(14.2)
* 지역별 수출증가율(%) : 일본(44.3) EU(36.0) ASEAN(33.8) 미국(20.6) 중국(15.6)

○ **수입**도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, **원유·가스** 등 **에너지수입 확대**로 종전 최고인 '08.3분기 1,231억불을 넘어 **1,234억불**을 기록함

* 수입증가율(%) : 석탄(63.2) 원유(41.3) 가스(26.7) 석유제품(17.3)
  - (원유도입물량) 207백만B ('10.1분기) → 235백만B ('11.1분기)
    (원유도입단가) 77.2 $/B ('10.1분기) → 96.3 $/B ('11.1분기)

□ 한편, **한국무역협회는** 최근 실시한 수출업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**최근 우리 수출업계가 직면한 환율, 원자재 등 대내외 무역환경을 발표**하였는 바, (붙임 2 : 수출기업 대상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)

○ 환율의 경우 **올해 1,100원 이하로 지속**될 경우 수출 감소로 **당초 수출목표 수정이 불가피**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고

○ 원자재의 경우 원유를 비롯한 **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큰 부담**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,

○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는 대일 수출입 모두 가시화된 피해사례는 없으나, **향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**하다는 입장인 반면,

○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차질이 연간 8억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
□ 지식경제부는 **당초 연간 수출은 5,130억불, 수입은 4,880억불, 무역흑자는 250억불 내외로 전망**되었으나,

○ 향후 **무역환경 변화가 매우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**할 때 **당분간 수출입 여건을 예의주시할 필요**가 있다고 밝힘

〈 붙임 1 〉 1/4분기 수출입동향점검회의 개요

□ **회의목적** : 1/4분기 10대 업종별 수출입 실적 및 전망 논의

□ **일사장소** : '11.4.14(목), 14:30~16:00 / 지경부 대회의실(6층)

□ **참석자** : 장관님, 업종별 단체 및 무역유관기관장 등 20여명

□ **회의 진행계획(안)**

시간	주요 내용	비고
14:30~14:35	·인사말	장 관
14:35~14:40	·1/4분기 수출입동향 개괄	무 역 정책관
14:40~14:45	·최근 우리 업계의 대내외 무역환경	무역협회 연구원장
14:45~15:35	·업종별 수출입 실적 및 전망 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선박, 자동차 등 10대 업종) * 업종별 5분 발표	업종단체
15:35~15:45	·지역별 수출여건 및 전망	KOTRA 사 장
15:45~15:55	·애로 및 건의사항 개진	참석자
15:55~16:00	·맺음말	장 관

〈 참고 〉 참석자 명단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
주 재	지식경제부	장 관	최중경
업종별 단 체 (10명)	한국반도체산업협회	회 장	권오현
	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	부회장	김 호
	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	부회장	전상헌
	한국자동차공업협회	회 장	권영수
	한국조선협회	부회장	한장섭
	한국기계산업진흥회	회 장	정지택
	한국철강협회	부회장	오일환
	한국섬유산업연합회	부회장	김동수
	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	부회장	김창로
	대한석유협회	회 장	오강현
유 관 기 관 (4명)	한국무역협회	국제무역연구원장	이경태
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사 장	조환익
	한국무역보험공사	부사장	조계륭
	중소기업진흥공단	이사장	송종호
지경부	지식경제부	무역정책관	한진현
		에너지산업정책관	이관섭
		주력산업정책관	남기만
		정보통신산업정책관	유수근

〈 붙임 2 〉 수출기업 대상 한국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

1. 설문조사 개요

○ 대상 : 18개 품목별 수출기업 311개사

○ 시기 : '11.4.6 ~ 4.11(6일간)

2. 설문조사 결과

(1) 환 율

□ 수출기업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, **현 환율 수준은 수출 적정환율과 사업계획 환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 환율에 근접 중**

구 분		규모별		
		전체	대기업	중소기업
수출 적정환율	수출채산성 및 경쟁력을 유지	**1,132.2**	1,121.7	1,135.1
사업계획 환율	'11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고려	**1,106,0**	1096.0	1,109.5
손익분기점 환율	수출마진이 0이 됨	**1,070.8**	1,049.8	1,076.7

○ 수출업체들은 환율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고정거래선이 많아서(39.9%),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가격이 상승해서(19.9%)라고 응답

○ 그러나 올해 1,100원 이하의 환율이 지속될 경우 수출 감소로 **당초 수출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업체가 상당수(65.6%)**

□ 최근 환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**상당수 수출업체가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(38.3%)**으로 나타났으며, 관리하는 업체는 대금결제일 조정(20.9%), 결제통화 다변화(11.3%) 등으로 대응

○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변동성이 너무 높고 예측이 어려워서(38.7%)이며 재무, 무역 등 전문인력 부족(16.2%), 거래금액이 소액이기 때문(12.7%)

□ 특히 **중소기업의 경우 한계 환율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높고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는 비중도 높음**(중소기업 40.7%, 대기업 29%)

(2) 국제 원자재가격

□ **절반이 넘는 수출기업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가 큰 부담이라고 응답**

* 큰 부담으로 작용 59.3%, 부정적이나 감내할 수준 36.7%, 영향없음 4.1%

○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 인상으로 전가하여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출규모가 목표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

- 전체 응답업체의 74.3%가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올해 수출이 목표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

○ 특히 수출을 포기해야 하는 **한계 유가 수준**으로는 **응답업체의 27%가 배럴당 130달러대, 22.8%가 120달러대 순**으로 응답하여 유가 폭등이 현실화 될 경우 수출에 심각한 타격 우려

> ※ 수출업체들은 **수출에 보다 부정적 영향**을 미치는 것에 대해, **원자재 가격 상승(53.7%), 환율하락(43.1%) 순**으로 답변